

봉 행 사

오늘 우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7개 종단의 불자들은 불기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법석에 동참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부흥 · 국민행복과 문화융성’을 국정 3대지표로 5천만 국민과 재외 동포들에게 밝은 희망을 전해주시는 박근혜대통령께서 틈을 내어 동참 해주신 데 대하여 종단협의회 구성원들을 대표해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의 정치 경제 상황,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요동치고 있는데다가 불안한 북한의 정세 때문에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장기화된 청년 실업에 따라 젊은이들이 무력감에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 파장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미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통령님과 새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며 경제를 다시 일으켜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여깁니다. 특히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토대가 되는 문화의 융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불안한 주변 정세, 특히 북한의 무모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단호한 대처를 하면서도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애를 써주시는 덕분에, 외국 언론에서 아무리 불안한 소식을 전해도 우리 국민들은 의연하게 각자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세계인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한 사이에 ‘공존(共存)과 상생(相生)’을 기본 원칙으로, 휴전 60년 사이에 더욱 깊어진 ‘서로 달라진 이질감’을 해소하고 아직도 ‘똑같이 갖고 있는 동질감’을 더 크게 살려나가고자 하는 소통과 화합의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 대다수 국민과 재외동포들은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분쟁과 테러·전쟁 등등은 대부분 상대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종교 등을 서로 존중하고 ‘나와 다른 남’의 생각과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대통령님과 새 정부가 이 점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국민통합을 위해 애써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학을 나오고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머나먼 외국의 수십 미터 깊이 탄광이나 병원에서 고생해야 했던 시절에 비하면 이제 극심한 가난의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국민들의 불만은 절대적인 결핍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생겨난다”는 점을 대통령님과 새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진정한 국민행복과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수 백, 수 천 개의 강물이 서로 다른 물맛을 지니지만 일단 바다에 들어오면 단 한 가지의 맛을 가진 바닷물이 된다”는 비유를 들어, 피부색과 출신 배경 등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승가공동체의 평등과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합을 이룩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 원칙에 더욱 충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와 여야 정치권·경제 문화계 지도자를 비롯하여 온 국민이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으로 가는 우리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기원대법회에 동참해주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의 기원법회가 세상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4월 1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합장